

-----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2

**네 번째 단계의 이김**

(3)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성경: 아 6:4상, 히 9:3-4, 10:19-22, 계 2:17

**I.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 영 그 거룩한'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려, 그분으로 적셔져, 그분의 단체적인 성소, 거룩한 성, 궁극적인 지성소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아 6:4상, 엡1:4, 계21:2.**

- A. 요한복음의 깊은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막의 실재로서 오시어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담긴 풍성들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1:14, 29.
- B. 고린도전서의 목표는 고린도의 믿는이들을 자극하여 생명의 성장을 열망하게 함으로 그들이 지성소의 실재인 그들의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2:15.
- C.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예수의 피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오라고 믿는이들에게 분부한다—9:3-4, 14, 10:19-22, 6:19-20, 참조 13:13.
- D.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복된 대로인데, 이는 성막 안에 있는 가구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의 완결 안에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시84:3-5.
  - 1.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교회의 길을 단지 외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2:7, 마6:6.
  - 2.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지점, 지성소이다. 이기는 이들은 시온이 되며,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계21:16, 참조 출26:2-8, 왕상6:20, 시48:2.

**II. 성막과 그 내용물들의 배열은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도 자세한 그림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시켜 그분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표현을 위해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킨다.**

- A. 우리는 우리를 번제(레1:3)와 소제(2:4-5)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어, 화목제(3:1)에 더하여 요제(7:30)와 거제(32절)와 전제(출29:40)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으로 완결되는, 우리의 속죄제(레4:3)와 속건제(5:6)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취하고 적용하기를 익혀야 한다.
- B. 우리는 물두명으로 상징되신 영-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야 한다—출38:8, 딤후3:5, 엡5:26.

- C. 우리는 임재의 떡상으로 상징되신 우리의 봉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해야 한다—출25:30, 33:11, 14.
- D. 우리는 등대로 상징되신 생명의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해야 한다—요 8:12, 출25:31-34.
- E. 우리는 금향단으로 상징되신 우리의 기도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야 한다—출30:1, 시141:2, 롬8:34, 히7:25, 계8:3-4.
- F.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실재이자 증거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야 한다—민10:33, 출25:22, 히9:3-4.

**III. 지성소의 실재인 그들의 영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감추인 감추인 만나이신 감추인 그리스도(감추인 생명 공급)와 짝나는 막대기(부활 생명)과 언약의 돌판(생명의 내적 울)을 누린다—히9:3-4, 요6:32, 11:25, 롬 8:2.**

- A. 이러한 항목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깊고 내재적인 체험들을 가리킨다.
- B.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념이 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출16:32-36.
  - 1.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켜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는 것을 계시한다—계2:17, 참조 요14:20.
  - 2.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의 초점이라는 것을 계시한다—요6:57.
- C. 짝나는 막대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짝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민17:8, 출25:33.
  - 1.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입증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두운 밤, 어두운 굴로 우리를 넣으신다—참조 민17:4-8.
  - 2.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다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고후1:8-9.
- D. 율법을 새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자동적인 기능이신 그리스도 둘다를 예표한다—출16:34, 26:33-34, 34:28, 38:21, 요1:1, 롬8:2.
  - 1.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됨으로 우리는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증거막, 예수의 증거가 된다—계1:2, 9.
  - 2.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므로써, 설치되어 운행하는 이 법과 협력한다—살전5:16-18.
  - 3.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종류의 기능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신다—롬8:2, 29, 엡4:16.